

군선교 신학의 정립



정성구 목사

들어가는 말

금년은 한국교회가 군대에 공식적으로 중군목사를 파송한 지 만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군선교 50년의 공과를 회고하고 새로운 군선교 상황에서 전군 신자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많은 군중활동을 통해서 한국군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과 국민정신의 계몽에 미친 영향은 참

- 약력 : • 화이트필드신학교 철학박사
•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 대신대학교 총장

으로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성장 요인에는 군중 활동이 큰 몫을 감당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군 신자화 운동이나 진중 합동세례식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군중 활동은 한국 교회 성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공헌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군진신학이니 국방신학이니 하는 신학적 모색이 있었습지만 군이라는 특수한 공동체의 환경적 조건과 신학의 입장을 달리하는 12교단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어떤 교리에 입각한 신학체계를 세울 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분명 군대라는 특수사회 속에 진행되는 군선교는 그 특정한 상황 때문에 특수한 면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군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군선교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군선교를 위한 신학의 정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21세기 군선교 신학을 수립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이 말하는 군선교의 신학적 정립을 위한 제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선교 신학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선교의 주체가 되는 교회의 환경과 선교의 대상이 되는 군대의 환경이 함께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환경과 군대의 환경을 동시에 분석하고 그에 적절한 대안과 전망을 세워 볼 것입니다.

I. 21세기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현실

1) 21세기 한국사회의 모습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해방사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21세기를 인간해방의 완성 세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의 해방, 독재자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과연 21세기는 모든 인류가 고르게 복지를 누리며 자유를 가지는 행복의 세기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보았을 때 결코 미래를 단순히 밝게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개발과 최첨단 무기의 개발로 인해 인류가 자멸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안겨주는 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와 불안의 세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1세기는 인간해방 완성의 세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인류 멸망의 세기, 인류 문명사의 마지막 세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함께 존재하는 시대, 그것이 21세기가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21세기에 접어드는 현재, 세계는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로서 지속적인 인구폭발과 이에 수반된 제3세계 문제의 심화, 자원의 고갈 및 지구환경의 악화, 경제의 위기 및 국제 협력의 문제 등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21세기의 인구구조는 노인인구의 증가, 생산연령층의 증가 및 학령인구의 감소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리고 여성고용과 여성정책의 변화로서, 한국여성의 고용비율은 1989년 41%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현재는 서구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며 단일가구-두 직장의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주5일제 근무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의 취업형태가 보급되고 있으며 노동과 기타활동의 구별이 불분명하게 되는 등 생활 패턴의 다양화가 가일층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사회복지요구와 환경문제, 식량자원, 에너지 등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통일이러는 변수에 의해 한국사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위기는 한국사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다가오는 것이 명확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위기에 대해 한국교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 다종교 사회에서 도전 받는 기독교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역사상 초유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여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5%인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기록은 대형교회 50교회 중 약 50%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97년 4월 19일 육군훈련소에서 7,200명에게 수세함으로 한국 군중활동 역사상 단회 최다세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특정교회를 향한 수평이동이라는 현상과 불신자 전도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성장의 정체현상이 199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 부재와 교인들의 미성숙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어지고 있고,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갈 만한 기독교문화의 창달이 미흡하여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배후에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다원주의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신학은 인본주의(人本主義 Humanism)와 세속주의(世俗主義 Secularism), 그리고 혼합주의(混合主義 Synchronism)의 영향으로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주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복음만이 인생을 살릴 길이기 때문에 복음전도의 황금어장인 군대를 전초기지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대중전도도 학원전도도 산업전도도 한계에 이르렀고, 교회성장과 전도대안 부재의 시대에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군선교밖에 없음을 한국교회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까지 선교는 복음적인 선교관과 자유주의 선교관의 큰 두 줄기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 양 진영의 선교관은 성경(Text)과 상황(Context)의 강조점의 위치에 따라 특징지어집니다. 복음적인 선교관은 성경(Text)에 강조점을 두면서 전도명령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선교관은

성경(Text)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문제삼기보다 정황(Context)이 어떤가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신학함의 틀로 삼기 때문에 신학과 선교 모두를 종교현상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좋지만 실제의 내용은 하나님 보다는 인간성의 회복과 인권회복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간성의 회복과 인간회복 운동도 필요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참 인간 되게 하는 복음운동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선교는 영웅적인 신앙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에 대한 절박한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화 운동과 선교운동은 잘못된 선교신학의 바탕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가 올바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무오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학과 선교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II. 군선교 환경의 변화

1) 한국 군대의 변화

우리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살펴볼 때 21세기의 한국군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군목단이 공동 집필했던 '21세기 군선교 정책'에 보면, "한국군은 장비의 경량화 및 기동화, 간부중심의 인적구조개편, 동원체제의 강화 등이 전망되며, 병력의 감소와 군복무기간의 단축이 거의 필연적이다. 통일 여부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21세기의 한국군의 큰 변화 양상은 소수정예 그것도 사병보다는 하사관과 장교집단이 주축이 되는 간부 중심의 인적구조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사병들의 복무기간도 현재 26개월보다 훨씬 단축될 것이며 국민개병제의 틀은 유지하되 간부 중심의 직업군인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결프전이나 코소보전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현대전은 공중전이고 하이테크전이므로 이제 육군 중심 구조에서 공군, 해군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런 변화 속에서 현재의 육군 중심의 군선교 전략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2) 군선교 환경의 특수성

군선교는 이런 군대의 변화뿐 아니라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군대 사회만이 지닌 독특성을 지적한다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군대사회는 의무에 의하여 형성된 집단입니다.

만 20세가 된 남자로서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갖춘 청년이면 누구나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군대 사회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터전으로, 전도의 황금어장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군대에 들어오는 많은 젊은이들은 한 번도 종교 문제를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신앙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성직자들과 가까이 접해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군중 활동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인격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없이 지내오다가 군대 안에서 군중 장교를 만남으로 그 신앙이 받아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군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폭넓은 선교전략이 요청됩니다.

② 군대사회는 엄격한 계급사회입니다.

계급과 지위 등의 많은 제약과 특수성이 있지만 그것들을 초월한 기독교적 사랑과 우애로 조화되는 공동체의 형성과 군인들 사이에 진정한 우애와 존경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군선교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③ 군대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절대성을 띤 명령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묵살되는 경우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군대사회에 적응하는 데 따르는 위기위식이 있습니다.

군생활이 일반 사병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변화 중에서 위기의식은 복음전달의 차원에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익숙했던 일상생활을 떠나 환경이 다른 병영생활에서 느끼는 일

중의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환경변화는 복음 전달이 용이한 심리적인 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군생활은 생활환경의 급변과 그 같은 변화가 조성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위기의식을 생성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받게 하는 데 매우 유리한 계기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군대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억압을 당하고 고독, 소외 등 현대사회 속의 실존하는 인간 자아의 모습을 수식하는 용어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경험되는 곳 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비인간화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군대라는 특수 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인간화의 요소들과 군인들이 직면한 계반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사고와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 전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III. 군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군대 및 군선교의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군선교 신학의 필요성과 성경이 말하는 선교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군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한 모색을 해 보고자 합니다.

1) 군선교 신학의 필요성

일찍이 화란의 선교신학자인 바빙크(J. H. Bavinck) 박사는 말하기를 “신학이 없이는 선교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적으

로 불가능하다. 신학은 모든 선교활동의 영원한 동료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학이 선교사를 선교지로 보내야 한다는 뚜렷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교활동이 언제나 신학적인 견해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선교활동은 마치 겉모양으로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선교사는 무의식중에 신학적 결정을 내리고 배후에 감추어진 신학사상을 갖게 됩니다.

선교사 자신은 선교지에서의 모든 자세나 접근 방법, 전도 방법 등이 어떠한 신학적인 확신에 있는지 인식치 못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신학은 확실히 그의 선교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학과 선교는 같은 맥락에 있으며 동전의 안과 밖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학의 바탕 위에 참된 선교도 기능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의 바탕 위에 있으면 바른 선교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교회가 군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참된 신학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신학의 입장을 달리하는 각 교단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어떤 교리에 입각한 신학체계를 세울 수는 없었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성경이 말하는 군선교 신학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성경이 말하는 군선교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특징을 살펴보고 군선교 신학의 기초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 선교란 말보다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란 말보다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선교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선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요즈음은 전도라는 말 대신에 선교란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이퍼(R. B. Kuiper) 박사는 그의 「하나님 중심 전도학」에서 선교와 전도는 그 정신에 있어서 똑같다고 말하고, 전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선교는 언어와 민족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한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전도와 선교가 같을지라도 그 범위와 개념에서는 물론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군전도’라는 용어보다 ‘군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군대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일컬어 수십 년 동안 군선교로 이미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자 합니다.

선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보내는 이’, ‘보냄을 받은 자’, ‘보내지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보내는 이’라 함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바로 선교사입니다. 군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는 군목이요, 평신도 선교사로 이미 세례 받고 군 입대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지는 상대방’은 선교의 대상자로서 천하만민과 모든 족속으로 특히 군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대상자는 모든 군인들과 군대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교회의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리

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군선교는 군대의 어떤 정책이 아닙니다. 군선교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자기 열정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교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시편 67장 1-7절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교회의 세계적 복음선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그의 선택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 안일과 안주에 빠져있을 때 이 시인은 메시아 구원 운동의 의미와 선교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① 선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선교의 문제는 ‘보낸다’는 동사적 정의만 붙들고 선교하는 행위 자체만을 귀히 여기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주의 도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셀라)”(시 67:1)라고 했습니다. 선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이 복음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은혜운동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참된 선교의 불은 붙습니다.

물론 선교에는 정책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선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정책이나 전략만 가지고 선교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선교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심령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만방에 이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증거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근거가 되어서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일선 군목들이나 모든 교회지도자들이 선교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신앙을 가질 때에 뜨거운 가슴으로 군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② 선교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교 책임과 소명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는 방법은 증거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만민에 대한 제사장 격으로 말합니다. 이제 시인은 ‘주의 도(The way)를 땅 위에 알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도는 곧 하나님의 길, 방법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운동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곧 어리석은 십자가의 방법, 말씀의 방법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선교는 바로 말씀운동이어야 합니다.

③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운동입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구원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았나이다”(은 2:9)라고 고백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운동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④ 선교는 민족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곧 구원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가 바로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 민족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참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들을 통해서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국, 남미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높은

직위의 사람이나 평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군의 장교인 고넬료들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장병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겠기에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3) 군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한 모색

우리는 군선교 신학의 핵심을 다음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영혼 구령은 군선교의 목표(행 16:16)

흔히들 군대 사회를 특수 사회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그 정황에 알맞은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군진신학이니 국방신학이니 하는 신학적 모색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군중 활동의 일차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16)라는 말씀처럼 군선교는 개인뿐 아니라 군 전체를 복음화하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군선교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군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군선교의 목표는 60만 국군에게 복음을 전하여 궁극적으로 전 군복음화를 이루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군선교는 무엇보다 군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회심과 신자화가 우선적인 과제가 됩니다.

군선교에 종사하거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모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신자화할 수 있는가의 비전과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 군대라는 특수사회 속에 진행되는 군선교는 그 특정한 상황 때문에 특수한 면을 지

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 군선교의 목표를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 성장 신학자인 도날드 맥가브란 박사는 그의 책 「교회성장 이해」에서 파종의 신학(씨뿌림의 신학)과 추수의 신학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군중 활동이야말로 복음의 파종과 추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군대에 들어오는 많은 젊은이들은 한 번도 종교 문제를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신앙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성직자들과 가까이 접해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군중 활동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인격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군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것은 군대 안에서 혹은 후일에 자기의 일터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즉 이는 최근 교회에서 벌이는 태신자 운동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 없이 지내오다가 군대 안에서 군중 장교를 만남으로 그 신앙이 발아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를 파종이라 본다면 후자는 추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군선교는 교회의 사명(막 16:15)

선교신학자들 중에는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선교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4복음서는 모두가 선교의 대명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군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학원선교, 산업선교는 갈수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는 군복음화, 곧 군선교는 선교의 최후의 보루로서 교회가 힘써야 할 교회의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지금까지 군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 중심의 선교의 방향이 계속되어져야 하며 특히 군선교연합회의 주요사역인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에서는 한국교회 가운데 군인신자 연결교회(1999년 7월 현재 약 1,000여 교회)와 연계하여 군 제대 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군선교도 교회가 담당해야 할 일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군선교는 몇몇 관심 있고 뜻있는 교회만이 동참했을 뿐이고 전 교회적, 전 교단적 관심이 군선교에 없었습니다. 청년의 영혼을 깨워서 미래의 한국교회의 일꾼을 만들려는 비전이 있는 교회라면 해외선교도 필요하지만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하는 군선교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군선교(롬 1:17, 고전 10:31)

바빙크(J. H. Bavinck)가 말한 대로 “선교사역은 죄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전 생애와 그가 처한

모든 관계가 왕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옮겨져야” 합니다. 성경의 구원 개념과 하나님의 영광 개념은 항상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워하지만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인간의 복지나 사회생활을 안정시키거나 정치적 안정이 일차적 목표가 아니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선교도 많은 목표가 있지만 무엇보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대개 구원론에 기초한 교회들입니다. 물론 구원론은 기독교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운동은 하나님의 영광(롬 11:36; 고전 10:31)에 기초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군선교를 지향할 때 단순히 청년들의 영혼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구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 없이 구원 없지만 그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화롭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교육과 목회를 통한 군선교(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이 본문은 흔히 선교사들이 선교의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항상 인용하는 성경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른바 ‘선교의 대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복합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명령(Mission Mandate)과 교육의 명령(Educational Mandate)과 목회적 명령(Ministry Mandate)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군선교는 선교적 명령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교육의 명령과 목회적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명령과 목회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21세기 군선교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은 교육과 목회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군목과 기존 신자 군인들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① 군목의 교육

군목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의 소명감입니다. 군목은 군인이지만 교단에 소속된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의식하고 영혼 사랑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대는 전도의 최후의 보루로서 군목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소명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명감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경건한 생활은 목회자의 자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군목도 역시 군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므로 목회는 말 그대로 영혼을 돌보는 일(Zielzorg)로서, 목회자로서 군목은 언제나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군목은 계급을 어깨에 달고 있는 장교로서 계급의 권위보다는 섬기는 자로서 봉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사에게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설교입니다. 설교는 목사만이 지니는 생명력으로 인식하고 군목도 설교에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군인들의 정신무장 강화나 사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설교이고 간증은 간증이며, 인격훈화는 인격훈화입니다.

요한 칼빈은 설교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위탁을 받고 선택된 전권대사’라고 하였고,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자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는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헌신된 자이며,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진리에 입술이 대인자들입니다. 설교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표현처럼 불타는 논리(logics in fire)이며, 존 스토틀의 말처럼 두 세계 사이(Between Two Worlds)를 연결할 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② 입대자 교육과 파송

군에 입대하는 교회 청년들을 선교요원으로 기동화시키는 방안을 교회가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반적 경향은 어떻게 하면 좋은 보직이나 편한 자리에 있다가 무사히 병역을 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 면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같은 안일하고 이기적인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입대하는 교회 청년들의 신앙심을 일깨워 주며

그들에게 선교의 책임감을 부여할 뿐 아니라 선교훈련을 통한 선교의 전위대로 활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릭 크레머가 그의 책 「평신도 신학」에서 말한 대로 모든 평신도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즉 교회 청년들로 하여금 군대로 보내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인식과 아울러 이에 준하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휘관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할 뿐 아니라 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원리 가운데 군선교에서도 동료들에 의한 일상적 전도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대하는 기독교 청년의 선교요원화는 매우 시급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23세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군복무에 임하는 것은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뿐 아니라 군이라는 사회로 파송받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인식과 아울러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해 각 교회뿐 아니라 군선교위원회에서는 이런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를 위한 전문적인 제자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 군인 신자 25만 명을 군선교 회원 및 일반 교회로 연결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3,700만 명(전국민의 75%) 정도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2020 운동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성취를 위해 남은 과제 역시 많이 있겠지만 결국 군인교회와 군선교회원 교회와 일반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루어야 군선교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5)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통한 하나님 중심의 군선교(롬 11:36)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등이 전제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6). 특히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의 사상의 구조를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 또는 기독교 삶의 원리의 핵심을 이루는 사상의 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크리스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체계가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은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변형시켜 버린 변질된 사상입니다. 만물이 물질에서 나와서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로 돌아간다는 사상의 구조가 유물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라면, 만물이 사람에게 나와서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자본에서 나와서 자본으로 말미암고 자본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은 자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의 골격에서 이해한다면, 인본주의 곧 휴머니즘의 사상체계는 이렇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변조하여 ‘인간에게서 나오고 인간으로 말미암고 인간으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인간에게 있으리라’와 같이 하나님 대신 인간을 대입시킨 것이 바로 휴머니즘, 곧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유물주의자들은 로마서 11장 36절을 자기

나름대로 그 골격에 맞추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만물이 물질에서 나와서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물질에게 있으리로다’라고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상들이 현대 세계의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작용하여 불신앙적이고 배교적이며 무신론적 사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머니즘과 유물주의 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학문 등 모든 분야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대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군목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사역에 임할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복무에 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중심 사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군선교의 과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군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와 삶의 중심이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세계관과 가치관은 결국 국 하나님 중심사상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 중심사상에 입각해 있다면 모든 거짓된 사상 운동에 능히 도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6)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군선교(골 2:10)

교회의 성경적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

며, 교회는 그의 몸이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가정에도, 학교에도, 정부에도, 군대에서도 그가 머리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군대의 영적 총사령관이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일반 사회와 군대사회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서울의 큰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산촌과 어촌의 작은 교회에도, 전방의 작은 군인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내무반 안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원론(Dualistic Idea)을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뿐 아니고 모든 군목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식하고 뜨거운 소명감에 불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병사들에게 이런 신앙을 고취하여 제대 후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지간에 직업의 소명(召命; Calling)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자신감을 길러서 다시 사회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금세기 화란의 가장 큰 변증신학자이자 문화이론의 대가인 클라스 스킨더(Klass Schilder) 박사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모든 삶이 깨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

복하고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통일하시는 분이며, 알파와 오메가로서 역사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세상 끝날까지 참된 신앙이 있는 문화를 이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만물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세상과 더불어(met) 있고 세상 안에(in) 있기 때문이다. ‘여기’와 ‘지금’은 결국 문화의 세계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시고 그 문화를 거룩하게 한다”는 요지를 말한 바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여기 정복한다는 것이 바로 문화창조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문화의 본질과 그 뿌리는 인간의 물질적 진화와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문화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도 종교와 문화를 분리할 수 없음을 말했고, 리(Lee) 박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문화의 위대한 창조자이며 유지자이며 성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문화를 경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문화를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두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독교 문화는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신자 청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문화적 충격이 술과 담배를 권유받고 상급자로부터

터 강요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의 T.V 시청이나 스포츠로 거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군대의 문화가 건전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선교에 관련하고 있는 군목들은 이런 군대문화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제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 군인들이 기독교 문화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복음을 받는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 안에도 파급되고 있는 P.C의 인터넷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독교 문화 창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군선교(시 119:105)

일찍이 19세기 칼빈주의 운동을 다시 일으켰던 흐른 반 프린스터러(G. groen Van Princeterer)는 어두워진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역사와 인생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이게 하자’고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 군대 안에 불안, 초조, 외로움이 있는 병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군선교 신학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을 모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뿐입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움직임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단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 삶 가

운데 표준이 되고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나 흥을 돋구어 주거나 감각적으로 병사들을 즐겁게 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진지하게 깨닫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접촉점이나 전도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안에서 이른바 태신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행하는 혼합주의적 사상을 용납치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의 틀로 삼고 상대적 기독교가 아닌 절대적 기독교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절대 하나님, 절대 성경, 절대 기독교를 생명으로 여길 때만이 참된 선교의 불이 붙게 됩니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군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면을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은 결코 밝은 전망만 할 수 없고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도전 가운데 세상과 교회를 보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한국교회와 군선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상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변화와 군선교 환경의 변화를 볼 때 군목과 기존 신자 군인들의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군선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군목의 자질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와 아울러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평신도 신학의 장점을 살려 군입대하는 청년들이 군대로 파송되는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군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군선교 신학의 의의를 잘 이해하고 군선교의 목표인 영혼 구령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군선교는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군선교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